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3. 7.(목) 11:00 < 3.8.(금) 조간 > 배포 2024. 3. 7.(목)

한-스웨덴 첨단산업 및 디지털경제 협력 방안 논의

- 「제2차 한-스웨덴 산업협력위원회」 회의 열려
- 「한-스웨덴 산업협력 양해각서(MOU)」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(TIPF)로 추진 합의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3.7.(목) 화상으로 스웨덴 기후기업부 마리아 로샌더(Ms. Maria Rosander) 유럽연합(EU) 국제협력국장과 함께 「제2차 한-스웨덴 산업협력위원회」 회의를 개최하여 규제개혁, 원자력, 바이오 등 첨단산업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스웨덴 제조업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링(기계, 전자통신 및 자동차), 철강 등 광산업, 의약품을 포함한 화학산업 등 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스웨덴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.

양측은 바이오 등 첨단산업, 원자력, 디지털경제 분야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, 우리 측은 스웨덴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였다.

아울러, 양측은 오는 6월 5년간의 효력이 만료되는 「한-스웨덴 산업협력 양해각서(MOU)」를 산업뿐만 아니라 교역·투자, 공급망, 디지털, 무탄소 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협력 패키지로 확대·발전시킨 「한-스웨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(TIPF)」 체결을 추진할 것에 합의하였다.

또한, 양측은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하는 「한-스웨덴 디지털경제통상 포럼」이 '20년부터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, 차기 포럼을 올해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.

산업부는 한국과 스웨덴 모두 제조업 강국이고, 혁신적 기술과 연구개발 투자를 중시해 온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며, 스웨덴의 높은 고부가가치산업과 한국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 간 시너지 창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이상헌	(044-203-5660)
		담당자	서기관	권순심	(044-203-566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